

생의 마지막 순간의 구원을

22229011
이지은

⌚ 목차

1 제작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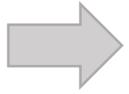
2 작품개요

3 작품설정

4 캐릭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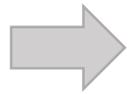
제작목적

목적



평범한 판타지 속의 여러 장르를
담은 웹툰을 제작하는 것

방향



전생에는 인간 현재는 요괴로서
사람들을 위로한다.
웹툰 속 캐릭터 뿐만 아닌
현재 힘든 이들에게 위로에 말을
건내는 것.

작품개요

제목 → 생의 마지막 순간의 구원을

형식 → 웹툰/ 100화 (예정)

장르 → Main:판타지, 일상
Sub:코미디,드라마

작품개요

로그라인

“우리의 목적은 우리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들이 없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더 이상 슬픈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막으며 본인들의 과거들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이야기

레퍼런스



나츠메 우인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귀곡의 문



내일

작품 설정

인간이 아닌 요괴들이 인간의 삶을 구원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
인간을 도와주는 건 요괴 뿐만이 아닌 천사와 악마들이 그들을 도와준다.

요괴들은 주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을 없애거나 죽은 영혼을 중간계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죽은 영혼이 인간들을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영혼을 강제로 잡아 끌고가는 일도 하고있다.

마지막 일로는 인간을 공격하는 같은 요괴들을 강제로 잡아 재판에 맡기고 관리 감독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으며, 초반 7명이 대표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도 본인의 위치의 맡는 일을 해주며
천사는 인간들의 위협을 가하는 것을 미리 와 처리해 주며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전의 죽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원 수가 부족하여 한 나라의 많은 인원이 몰릴 수 없어서 팀으로 활동한다.
악마들은 범죄자들을 처단하며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 끝도 없는 고문을 가하는 존재이며,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는 가끔 구원을 해주기도 한다.

캐릭터





이름: 서화연(화윤)

“ 인간을 쉽게 믿지는 마..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된다면 너도 알겠지”

여성일때는 타인에게 차갑고 곁에 있을 틈을 주지 않았다.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약간 까칠한 표정의 잘 웃지도 않는다. 가끔 미소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 또한 보기 힘들다.

남성일때는 항상 웃으며 존댓말을 쓴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서 여성일때와 비교하면 항상 놀라게 된다.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 하는 것 같다. 화낼 땐 어느 누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섭다.

전생에 본인이 죽는 순간까지 한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이름: 유청아(청운)

“내 소원은 말이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야.”

여성일때는 항상 잘 웃고 운동을 좋아한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 하고 뛰어든다.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

남성일때는 조용하다 말이 많이 없지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며 말이 많아진다.

전생에 사랑하는 이와
같이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름:천수련(수현)

“전생의 너에게 너무 미안해..
지금이라도 나와 함께 해줘.”

여성일때는 애교도 많고 나긋나긋 하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정말 좋아하며, 좋아하는 이에게 본인의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남성일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 타인이
같이 있으면 엄청 질투한다.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며 하루의 1시간은 꼭 바다에서 지낸다.
혼자 우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인다.

전생에 본인과 함께 하는 이가 죽었다.
누구보다 의지했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이름: 서 월(서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해줄 가족이 나를 버린 순간이야.”

여성일때는 항상 무표정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 지 모르겠지만 머리 속이
꽃밭인 것은 확실하다.
특이한걸 좋아한다 여러 특이한 인형을 모을 때
즐거워 한다.

남성일때는 타인에게 예의가 바르다.
직업병일까 남을 가르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한다. 설명도 그 사람에게 맞는 선에서
설명해 준다.

전생에 친구와 같이 동반자살을 반강제로 하게
되었다. 난 하기 싫었는 데 말이지.



이름: 씨앗님

“나는 말이야 네가 그 아이들을 구원해 줄 거라
믿어.”

모든 것이 비밀인 씨앗님 언제나 환하게 웃지만
어느 순간 싸한 분위기가 흐르며
공기가 무거워 진다. 그 순간 만큼은
염라대왕이라 해도 믿을 만큼
위협적인 분위기로 만든다.
하지만 평소 씨앗님은 머리 속이
그 누구보다도 꽃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름: 김민아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가 있든
너희는 내 구원자야.”

친구들이 요괴인 걸 알았지만
그들과 왠지 계속 함께 하고 싶어 졌다.
어릴 때 만난 그 아이 때문일까?
요괴에 대해 부담감이 없어졌다.

전생이든 현생이든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죽는 순간에도 너희를 보고 싶어..
그 만큼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